

가족과 이웃 국민이 함께 조성하는 동판대장경

해인사팔만대장경 '동판복원'의 의미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팔만대장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보존 유지하여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이다.

해인사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 23년인 1236년부터 고종 38년인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완성된 뒤 75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오는 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 앞에 그 성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정교한 과학성과 뛰어난 서풍(書風), 방대한 경전의 집대성, 거의 오류가 없는 교정의 치밀함, 수백 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되어온 역사 등을 미루어 볼 때, 해인사팔만대장경은 무야의 경지에서 이루어낸 호국·호법 신앙이 아니고는 이를 수 없는 각판예술의 극치이다.

이해는 세계의 모든 한역대장경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종교적 성보(聖寶)일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보배요, 나아가 전 세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우리는 이를 잘 보존하여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팔만대장경은 보존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목판자체가 가지고 있는 천년이라는 수명의 한계이며, 또 하나는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장경각이 관람객들의 무제한 출

입으로 말미암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먼지라든지 각종 해로운 환경조성으로 인해 팔만대장경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이나 해인사 대중들의 일치된 견해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다 완벽하게 물려주기 위해 장경각 출입을 제한해야한다는 것이다. 외국 의 경우도 중요한 국가문화재는 철저한 통제를 통하여 그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재 해인사에서 봉행하고 있는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사업은 일차적으로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팔만대장경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인경(印經) 작업, 우수한 우리 문화의 교육 및 홍보, 다양한 체험 등 폭넓은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해인사팔만대장경은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과 살아있는 대장경으로서의 다양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화유산의 철저한 보존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울러 문화적이나 종교적·학문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팔만대장경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관람객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장경판전 외부



법전 종전에해가서 동판 팔만대장경 결정판을 부처님께 봉정하고 계시는 모습.

살장을 통한 대장경판 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차원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그들에게 우수한 우리문화에 대한 교육·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팔만대장경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하지만 현존 목판 팔만대장경은 보존상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거의 제한되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팔만대장경의 엄밀한 보존과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수명이 반영구적인 인청동(靑銅)으로

복원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팔만대장경을 인청동으로 복원 조성하게 되면 장경판전 통제를 통해 현존 목판대장경의 엄밀한 보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인경작업, 관람객의 직접적 체험, 다양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해져 비로소 팔만대장경 본연의 가치를 발현하게 되는 것이다.

현존 목판 팔만대장경에서 누락된 주요경전과 우리나라 역대 조사 어록 등을 증보하여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21세기 신대장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새로 조성되는 동판 팔만대장경은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심혈을 기울여 교정하고 완성한 성과물을 반영하고, 다른 나라 대장경에는 있으나 해인사 목판 팔만대장경에는 누락되어있는 주요경전과 우리나라 역대 고승들의 조사어록을 추가 증보하여, 명실 공히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방대한 '21세기 신대장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판대장경 불사 원만 성취를 바라며

"진리의 하늘이 맑으리라"

동판팔만대장경은 달을 바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 역시 달을 보도록 해주는 대선지식이 될 것입니다.

진심부동(真心不動)하면 교해정명(敎海澄明)이요 득용어여(得用如如)하면 의천병환(義天炳煥)이로다. 참마음이 요동치 않으면 교해(敎海)가 맑을 것이요 용(用)이 분명하면 진리의 하늘이 맑으리라.

도림 법전 조계종 종정(봉정식 법어 중에서)

"21세기 신대장경을 만들자"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보존하고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불교계는 물론 정부와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합니다. 천년 수명의 목판에서 만 년을 이어갈 동판으로 '21세기 신대장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대장경 불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국민이 화합하고 나라가 더욱 번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고불식 축사 중에서)

"민족문화유산 항구적 보존 의미 커"

천년수명의 목판에서 만년을 이어갈 동판으로 21세기 신대장경을 새로이 제작하는 이번 사업은 민족문화유산의 항구적 보존과 활용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의 한글번역, 그리고 그 전산화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이번 팔만대장경 동판화 사업은 우리 불교가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끝없이 재창조하는 미래지향적인 노력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봉정식 축사 중에서)

"새로운 정신적 역할을 기대한다"

75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그 슬기와 마음을 본받아 이 시기에 다시 이 복원 사업에 전 국민이 참여해서 동판으로 복원하는 일은 단순히 팔만대장경을 복원하는 것이 아닌 750여 년 전 그때와 같이, 우리의 분단이 하나의 평화로 바뀌어 가고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서로 해소되어 화해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봉회현상이 여기에서 새로운 길로 발출할 수 있는 정신적인 하나의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하를 드립니다.

강원룡 목사(고불식 메시지 중에서)

"정치·경제·사회의 황금시대 열자"

동판대장경을 조성함으로써 저희는 선조의 피맺힌 구국의 염원을 계승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적 전개에 나아감으로써 민족분단의 청산과 국민화합 그리고 높은 문화를 창달할 정치·경제·사회의 황금시대를 열고자 하옵니다.

고은 시인(고불식 발원문 중에서)

'동판 팔만대장경' 탄생까지의 과정

장경각을 바라보며 한 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해인사 대중들은 현 목판의 영구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신앙으로서 목판을 대체하여 누구나 보고 만지며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대장경의 조성을 발원하였다.

그러하여 지난 해, 여러 차례의 산중 입회(休會)를 통해 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불사에 관한 논의의 하였으며, 동판으로 팔만대장경을 복원 조성하여 현 목판대장경의 근본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구히 담아, 찾아 즐기는 문화로서의 대장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나누는 대장경을 조성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초기기본을 토대로 지난 2003년 11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동판 팔만대장경불사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가졌다.

그리고 고불식 이후에 이 시대 최고의 대장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님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해인사 동판대장경 불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동판대장경 불사의 취지, 동판의 재질, 서체 및 제작기법, 디자인 등 모든 분야를 점검하고, 백여 종에 이르는 샘플 제작 및 오랜 기간과 여러 차례의 자문·검수 과정을 거쳐

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검증하여 경판의 최종결정판이 탄생되었다. 해인사에서는 지난 5월 17일 이 결정판을 모델로 금강경, 아미타경, 반야심경, 불설법신경 등을 제작하여 부처님께 봉정하는 동판 팔만대장경 결정판 봉정식을 가졌다.

새로이 조성되는 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에 사용되는 재료는 주식회사 풍산 제품으로 보존성과 경도가 가장 우수한 인청동3이며, 또한 판각의 깊이는 글씨의 정확성과 인쇄감, 시각적 자연스러움이 가장 뛰어난 0.6mm로 하였다.

특히 동판대장경에 사용되는 글자체는 팔만대장경 원본의 글

각계 전문가 6개월간 자문·검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종 검증

식기법을 적용했다. 그리고 1.3mm두께의 인청동판을 사용하며, 전체 경판의 두께는 20mm이며 두께는 목판보다 약간 무거운 4.2kg이다. 또한 크기는 목판과 같으며 디자인은 현 목판의 심미감을 최대한 살리고 금속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리고 동판의 재질을 순수하게 유지하여 그 보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체의 땀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 제작하였다.

특히 동판대장경에 사용되는 글자체는 팔만대장경 원본의 글

자체를 바탕으로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10여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팔만대장경 정자본 한 자체를 사용함으로써 이 시대에 가장 완벽한 대장경을 만드는 데 기초로 활용한다.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과정에서 큰 애로사항은 학문적 연구를 거쳐 규명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체자(체자)와 같은 모양이 다른 글자가 많다는 것이었는데, 이처럼 이체자가 많은 목판본을 그대로 동판에 옮길 경우 경전을 볼 때 이체자 사전 없이 해독이 어려워 활용

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동판 팔만대장경은 대장경연구소에서 목판본에 나타난 일부 오류를 완벽하게 보완한 성과물을 반영하고, 모두가 알기 쉬운 정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누락된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증보하는 데 있어서도 서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동판 팔만대장경이 완성되면 목판 팔만대장경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문화사적 업적이 될 것이다.



스님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동판팔만대장경의 서체, 제작기법, 디자인 등 전문 분야에 걸친 자문·검수과정을 하고 있다.

자문위원 명단

-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정림 스님
- 고려대장경 연구소 대역스님
- 재단법인 아미타기 신연근 이사장
- 서울대학교 이태녕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미술학과 서세목 명예교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금속공정 연구센터 김재수 박사
- 국민대학교 금속공학부 김승희 교수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신승은 교수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이상해 교수
- 도시건축 조성용 소장
- 안 그래픽스 안성수 대표
- 한국예술종합학교 안규철 교수

통일 발원 담야 3질 제작... 해인사, 北사찰, 시주자 보관

해인사팔만대장경은 몽골의 병화 속에서 제작기간 16년에 연인원 150만 명이 참여하여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를 염원하며 한 자 한 자 새겨나가 어마어마한 대작불사가 이루어낸 것으로 이는 호국·호법 신앙의 꽃이며, 화합과 평화의 정수이다.

이 시대에 새로이 조성하는 해인사팔만대장경의 동판복원불사는 선조들의 국난극복정신과 민족문

화를 계승발전하고, 법륜상전과 국운융창,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의 발원을 담야 개인, 가족, 단체, 기업 등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성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동판 팔만대장경에 동참자의 이름을 각인하여 우리민족의 최대 과제인 평화통일의 발원을 담아 한질은 해인사에 봉안하고 한질은 북한 사찰에 모실 계획이며, 시주자에게는 해인사와 북한 사찰에 모

신 통일한 경판 한 장을 가보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울·논 삼상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총망라한 팔만대장경을 결집하는 이 불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몇 번밖에 없었던 만큼 흔치 않은 인연이고, 현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것도 8만



100여명에 이르는 샘플제작과 전문가의 자문·검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동판 팔만대장경.

여 명만이 동참할 수 있는 희유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동참자는 천년의 팔만대장경에 만년의 생명

력을 불어 넣고,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민족문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지금 전국 어느 농협을 방문 하셔도 동판 대장경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동참금 납부방법 :
 - ① 전국 농협에 직접납부
 - 전국 농협에 비치된 동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하시면 됩니다.
 - BC카드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② 해인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동참금 : 100만원 (동일경판 3장 : 해인사 봉안, 북한사찰 봉안, 각 개인 소장)
- 문의 : 1577-0889